

칼럼

김 호 경 뉴시스 사회부장



①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고양이가 죽은 날, 아내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 중국집에 갔다. 굵직한 말자고 짬뽕을 시켜...

우다다거리지도 않고 언제나 잠잠하며 기쁨이 있었다

집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퇴근길이 더욱 즐거웠다. 심신이 기진맥진해서 일터에서 돌아오는 형아에게 밀루는...

아내의 심정은 사실 나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밀루가 생후 3개월 때부터 함께 살았던 아내와 처제는 녀석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올해는 못 넘길 것"이라고 포기한 채 눈물이...

다는 징후다.

토요일 아내가 잠시 외출한 시간에 밀루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이...

그런 일은 다음날 한 번 더 있었다. 내 손등에 오른쪽 뺨을 대고 누운 채 정신을 잃고 있던 녀석이...

그 뒤로 한동안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이 빠져 지냈다. 내가 겪게 되리라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社說

응급처치 이수를 높여야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현황을 조사하고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나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

지 못했다. 일반인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장소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설문대상 1천 명 중 668명(66.8%)은 사는 곳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된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閏餘成歲

윤달 넘을 이름 해

閏餘成歲

▷ 뜻: 일년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해를 이루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공직자의 청백리 정신

청백리(淸白吏)의 청(淸)은 밝은 물처럼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백(白)은 다른 빛깔에 진해 물들지 않은 흰색으로 때 묻지 않았다는 뜻이며, 리(吏)는 '관리,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하며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에...

물들지 않은 정신을 가진 관리를 말한다. 청백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할 지라도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부와 기회, 권력을 쉽게 얻기 위해 악용하지 않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묵민심사에서 '인자(仁者)는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했다.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으면 자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열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얕은 자는 그 욕심이 적기 때문에 탐리(貪吏)가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당 눈앞에 있는 돈과 권력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손에 쥘 수 있을지 모...

르지만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잃기 마련이다. 다산의 말처럼 정말 지례로운 사람이려면 청렴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택할 것이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 직장, 내 가족까지도 모두 청렴결백하게 거느릴 수 있는 관리가 될 것이다. 박영남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湖南新聞 本 社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인문진흥재단